

# 근대 역사담론의 형성과 소설적 수용

- 역사·전기소설과 딱지본 소설을 중심으로

이승윤\*

1. 문제제기 - 역사담론·역사소설·문학사
2. 근대 계몽기 역사 담론의 형성과 역사·전기소설
3. 수용과 변개(變改) - 역사소재 구활자본 고소설의 생산과 유통
4. 역사·전기소설과 구활자본 고소설의 역사차용 방식
5. 남은 과제들 - 구활자본 고소설의 소설사적 위치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계몽기에서 1910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담론의 형성과 소설적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많은 경우 역사담론은 내셔널리즘을 비롯한 복합적인 이데올로기와 공모 혹은 연대를 통해 생산되며,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여러 담론을 통한 문학적 접근은 소설이라는 양식의 고정된 특징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소설로 통칭되었거나, 당대에 소설로 불려지는 시공간 속에서의 명명과 형성, 반복과 변형, 차용과 교섭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곧 지금까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역사소설에 대한 논의들을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재배치하고, 한국 근대 역사소설이 위치한 다양한 지점들과 맥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전기소설은 근대계몽기 과거의 민족적 영웅들을 호출하여 민족적 기억들을 선택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민족 통합과 민족국가 수립으로 나아가려는

\*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도의 산물이었다. 즉 역사·전기소설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과 세계관을 구조화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담론 형태로 선택한 양식이 역사·전기소설이었다.

역사·전기소설은 이렇듯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었지만, 그 문학적 형식은 전류(傳類) 문학이나 군담계 소설과 같은 전대(前代) 문학 양식을 이어받고 있다. 역사·전기소설의 이러한 서술방법은 1910년대와 1920년대 구활자본 고소설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 유사성이 곧 역사·전기소설과 구활자본 고소설의 연속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1910년대 이후 생산된 구활자본 고소설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양식을 답습하고 있지만 그것이 놓여진 층위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시기 구활자본 고소설들은 상업적인 의도에서 대중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매개체로서 전대 양식과 역사를 활용하였다. 이는 곧 1910년대와 20년대 역사소재 활자본 고소설의 형성이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이 지니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였다기보다는 양식적 계승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약 250여종의 구활자본 고소설 중 역사관련 서사가 100여종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독자층의 확대를 통해 역사 소재 활자본 고소설들은 근대 역사소설이 발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구활자본 고소설이 쇠퇴의 길로 들어선 시점에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야담사'가 설립되면서 조직적인 야담부흥운동이 전개되며, 본격적으로 야담이 생산 유통되기 시작한다. 1910년 초반부터 20년대 중반까지 대중의 역사소비 방식의 중요한 매체로 기능했던 구활자본 고소설의 역할이 야담에게로 이행된 셈이다.

---

## 주제어

역사소설,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 구활자본 고소설, 담론, 문학사, 문학적 양식, 대중, 출판, 야담

## 1. 문제제기 - 역사담론·역사소설·문학사

한국 역사소설은 근대정신의 산물로서 우리나라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성숙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형성기에서 식민지라는 수난기에 처하여 현실 도피적이거나 대중추수적인 경향의 작품들, 혹은 지배층의 이념 전파 수단을 위한 작품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에 대한 각성을 제기하려는 뚜렷한 역사의식을 지닌 작품들도 발견된다. 시대를 막론하고 문학사에서 역사소설이 갖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측면은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명백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역사소설의 등장은 1920년대 사회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1890년대부터 1910년대에 이르는 이른바 근대계몽기의 역사 전기물들은 역사소설의 선행형태로서 기능하며, 또한 그 이전의 군담소설이나 전(傳) 등 전래적 서사문학 장르의 전통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문학은 전대(前代) 문학과 상호관련성 문제가 해명되지 않고서는 그 실상이 드러날 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존의 역사소설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 혹은 1930년대에 창작된 장편 역사소설 등 특정 시기의 작품론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근대계몽기에서 1910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담론의 형성과 소설적 수용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sup>1)</sup> 많은 경우 역사담론은 내셔널리즘을 비롯한 복합적인 이데올로기

1) 역사담론의 형성이 역사소설로 수용되는 과정이 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하나의 문학작품이 그 사회의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역사소설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이 '새로운 역

와의 공모 혹은 연대를 통해 생산되며,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작동하기도 한다.<sup>2)</sup>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역사담론들이 실제로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들과 이후 역사소설의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소설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소설은 경계선에 걸쳐 있는 담론이다. 그것은 공식적 담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하기도 하고, 혹은 훨씬 덜 말하기도 한다.<sup>3)</sup> 일제 지배하에서 생산된 역사에 대한 여러 담론과 역사소설은 민족의식에 대한 직·간접의 표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저항 민족주의의 이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역사를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오히려 역사가 현재화·사유화(私有化)됨에 따라 역사를 한갓 진기한 것, 이상한 흥밋거리, 삽화적인 것으로 다루기도 하였다.<sup>4)</sup> 그런 와중에도 역사는 여전히 민족

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의 역사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고는, 문학작품과 담론 형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라 할 수 있다. 小森陽一, 「문학으로서의 역사, 역사로서의 문학」, 小森陽一·高橋哲哉 편, 이규수 역,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2002, 26~43쪽 참조.

2) 魯曉鵬, 『역사에서 허구로』,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 길, 2001, 111쪽. 실제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들과 일제하에서 생산되는 여러 역사담론의 생산과 소설적 적용은 문학적 논리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으며, 정치적·사회적·제도적 차원의 접근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魯曉鵬,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82쪽.

4) 루카치는 제국주의 사상이 어떻게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을 현재화, 사유화했는지에 주목하면서 파시즘의 논리야말로 역사를 신비화시키는 하나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즉, 역사적 단계들의 참된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난날 사건의 '일회적 성격'이 그려지지 않음에 따라 역사는 현재화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들이 과거의 기본구조는 경제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현대의 그것과 같다는 확신에서 출발하였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역사는 진기한 것, 이상한 것의 수집으로 해소되고 말며, 역사가는 역사적인 에피소드의 이야기꾼에 멈추고 만다는 것이다. G. 루카치,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거름, 1987, 223~238쪽 참조.

적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의식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추려는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여러 담론을 통한 문학적 접근은 소설이라는 양식의 고정된 특징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소설로 통칭되었거나, 당대에 소설로 불려지는 시공간 속에서의 명명과 형성, 반복과 변형, 차용과 교섭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설을 생산하는 행위자의 의도와 전략, 그것의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에 대한 분석을 주요한 임무로 삼는다. 이는 곧 지금까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역사소설에 대한 논의들을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재배치하고, 한국 근대 역사소설이 위치한 다양한 지점들과 맥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sup>5)</sup>

## 2. 근대 계몽기 역사 담론의 형성과 역사·전기소설

조선후기 신분제 붕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계층 형성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화폐·상품 경제의 발달은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계층 형성을 촉발하게 된다. 양반의 몰락과 상민 계층의 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당시 사회 변화는 그동안 양반의 전유물이

---

5) 한편 하정일은 한국 근대의 특수성을 읽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수행적 독법'을 제안한다. 그는 이른바 해체론적 탈식민론이 구체적 현실까지도 텍스트로 환원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텍스트주의적 독법이야말로 단절과 차이를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본질주의로 함몰되도록 한다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수행적 독법이란 "담론을 하나의 사회적 실천으로 읽어냄으로써 담론의 맥락적 의미와 실천적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역사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하정일, 「탈식민의 역학」, 2005년도 민족문화사학회 기초학문육성지원팀 학술회의 자료집, 2005년 4월 23일 성균관대학교, 1-6쪽.

있던 문예를 부의 축적을 통한 새로운 계층까지 그 향유계층의 폭을 점차 넓혀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 시기는 이른바 소설의 시대라 할 만큼 소설이 크게 성행했고, 문학의 전 영역에 걸쳐 서사화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시기였다.<sup>6)</sup> 하지만 소설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사대부들 간에는 오히려 소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sup>7)</sup>

이른바 근대계몽기<sup>8)</sup>의 역사·전기소설의 작가들 또한 전대(前代) 소설과의 관련 속에서 소설 양식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평가에 대한 고민을 극복해야만 했다. 즉 애국 계몽을 통한 대중의 각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설 양식이 다른 문학양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고전소설과 신소설이 가지고 있던 통속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夫小說者는 感人이 最易하고 入人이 最深호야 風俗階級과 教化程度에 關係가 甚鉅한지라 故로 …… 何鍾이 盛行호는 것을 問호면 可히 其國의 人心風俗과 政治思想이 如何호는 것을 觀호리라 호엿스니 …… 我韓은 由來 小說의 善本이 無호야 國人所著는 九雲夢과 南征記 數種에 不過호고 自支那而來者는 西廂記의 玉麟夢과

- 
- 6) 임성태,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7-38쪽 참조.
  - 7) 서종문, 「조선조 후기의 소설의 수용」, 사재동 편,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V, 중앙문화사, 1995, 1620-1624쪽.
  - 8) 1890년대 이후 1910년에 이르는 시기를 논자에 따라 개화기, 근대전환기, 계몽기, 애국계몽기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른다. 어떤 경우 단순한 문학사의 시기 구분을 위한 명명에 그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문학이 가진 근대적 성격과 관련지어 나름의 의미부여를 통한 접근도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것. 최원식, 「제국주의와 토착자본」,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1; 임형택, 「20세기초 신·구학의 교체와 실학-근대계몽기에 대한 학술사적 인식」, 『민족문학사연구』 9호, 1996; 김영민, 「한국문학사의 근대와 근대성」, 문학과 사상연구회 편, 『20세기 한국문학의 반성과 쟁점』, 소명출판, 1999; 고미숙,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족문학사연구』 14호, 1999 등.

剪燈神話와 水湖志 等이오 國文小說은 所謂 蕭大成傳이니 蘇學士傳이니 長豐雲傳이니 淑英娘子傳이니 是는 種類가 閭巷之間에 盛行하야 匹夫匹婦의 菽粟茶飯을 供하니 是는 皆荒誕無稽하고 遙靡不經하야 適足히 人心을 蕩了하고 風習을 壞了하야 政教와 世道에 關하야 爲害不淺하리라 若使世之觀國者로 我邦의 現行하는 小說 種類를 問하면 其風俗과 政教가 何如타 謂할것는가<sup>9)</sup>

박은식은 당대에 수용되는 소설의 질적 정도에 따라 한 사회의 기풍과 사상이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전소설의 통속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계몽주의 시각의 지식인들은 일반 대중의 계몽과 의식의 각성에 기여할 수 있는 소설 양식을 고대하고 있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의 역사·전기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서사성의 약화와 계몽성의 강조는 그들이 소설 양식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뚜렷한 목적의식의 소산이다. 역사·전기소설은 철저히 시대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190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보호국 체제의 등장은 왕의 힘이 급격히 약화된 자리에서 새로운 정치 공간을 출발시켰다. 일제는 통감부를 통한 조선 지배를 대내적으로는 시정 개선이라는 개혁의 명분으로 정당화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문명개화를 위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위장하였다. 일진회와 같은 친일 단체들은 일본의 정치적 선전을 한국 사회의 내재적인 요구처럼 포장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식민주의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하기에 이른다.

변화된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이전의 정치 세력들은 전략을 다시 고안해야만 했으며, 그들의 대립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예

9) 박은식, 「瑞士建國誌」,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역사전기소설』 6권, 아세아문화사, 1979, 197쪽.

권대 척사론자들이 왕조 체제의 부활을 기도하며 의병운동을 도모하였을 때 대부분의 개화론자들은 오히려 의병운동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sup>10)</sup> '국권회복의 관건이 자강, 즉 실력의 양성에 있으며, 그 실력 양성은 정치의 개혁, 단체의 결성, 신교육의 실시, 신지식의 보급, 실업의 진흥에 있음'을 주장하였다.<sup>11)</sup> 각종 단체, 잡지, 학교 설립 등으로 드러난 새로운 정치적 실천들은 바로 당시 정치적 세력들이 계몽활동을 본격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었다. 이들 계몽활동의 중요 부분은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한 담론적 실천이었으며,<sup>12)</sup> 역사·전기소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의 사회적 확대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문학 양식이었다.

역사·전기소설은 1905년 을사 5조약 이후 대량으로 창작 발표되기에 이른다. 특히 1907년 고종 양위 직후부터 1909년까지 애국계몽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sup>13)</sup> 역사·전기소설이 가장 많이 창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국권을 상실한다는 위기감의 확대에 비례하여 이른바 역사·전기 문학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단적 상황은 과거의 민족적 영웅들을 호출하여 민족적 기억들을 선택적으로

10) "嗚呼라 國運이 不幸호야 義兵을 倡起함이 有호도다...此는 時機를 全昧하고 同族을 自滅케 호는 誤見이라...義의 一字는 時勢의 宜와 四行의 宜를 義라 稱호는 것이오 若其時勢와 事行에 適宜치 못호지면 義라 칭호기 不可호니...義兵의 諸君은 吾輩의 忠告를 受容호야 各其生命의 保全을 深思호고 實力의 發展을 希圖호야 歸家安業호다가 稍稍國權의 恢復을 期待호시오." 「再警告義兵」, 『황성신문』 1907. 10. 22.

11)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30~36쪽 참조.

12) 1906년 이후 설립된 대한자강회, 신민회, 대한협회, 성우학회, 기호흥학회 등의 단체는 대개 기관지로 잡지를 출간하였다. 이를 두고 임화는 '개화와 계몽의 열성이 양양되면서 잡지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임화, 임규찬·한진일 편, 『신문학사』, 한길사, 1993, 84쪽.

13) 신용하, 『한국 근대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문학과지성사, 2001, 117-118쪽.



복원함으로써 민족 통합과 민족국가 수립으로 나아가려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근대계몽기의 번역·번안류를 포함한 역사·전기류 문학들은 한일합방이 일어나는 1910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895년경부터 『만국략사(萬國略史)』, 『중일략사(中日略史)』, 『아국략사(俄國略史)』, 『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 등 수십 편의 역사물과 전기물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는 한편, 창작물은 1900년 이후, 특히 1905년경부터 1910년 사이에 전개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발표되었다.<sup>14)</sup>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등 역사·전기소설의 주요 작가들은 주지하다시피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계열의 중심 인물들이었다. 1905년 이후 생산된 소설들이 그 이전의 소설과 구별되는 지점 중의 하나는 작가의 이름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담론의 공공적 책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즉 역사·전기소설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과 세계관을 구조화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담론 형태로 선택한 양식이 역사·전기소설이었다. 당대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심, 애국주의를 배양하기 위한 방법적 선택이 곧 역사·전기소설이었던 것이다.

역사·전기소설은 그 배경이나 주인공 등 서사의 내용 자체가 역사적 실재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존했던 인물의 삶과 행적에 초점이 맞추어

---

14)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이 시기 '역사·전기소설'에 대해 역사소설, 정치소설, 전기소설, 역사전기 문학, 전기류 문학, 역사전기류 소설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했다. 이러한 용어의 혼재는 같은 논자의 같은 글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이 용어가 분명한 장르 의식 아래 사용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서울판사, 1997, 83-94쪽 참조. 본고에서 역사·전기소설이라 칭할 때에는 이 시기 발표된 작품들 중 창작물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 외 번역·번안소설 등은 역사·전기류 문학으로 통칭하여 사용토록 한다.

져 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본보기·가치·명분·이상을 제공한다.<sup>15)</sup> 역사·전기소설은 당대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민족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영웅적 인간상의 서사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역사가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심, 애국주의를 배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과 부문이라고 보는 역사 민족주의<sup>16)</sup>의 고양을 외국의 역사물을 보급하고, 특히 사서류(史書類)와 구국 영웅의 전기류 발간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역사·전기소설은 이렇듯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었지만, 그 문학적 형식은 전류(傳類) 문학이나 군담계 소설과 같은 전대(前代) 문학 양식을 이어받고 있다. 전(傳)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sup>17)</sup> 우선 입전 인물의 가계 및 출생 주변이 기술되고, 그 다음은 생애 중 두드러진 행적 및 처세 상황이 기술되며, 끝으로 평결(評決)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傳)의 구성 양식은 대부분의 역사·전기소설에서 답습되거나 확장된다.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에서 발견되는 ‘-傳’의 모습은 당시 작가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양식이기에 선택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은식은 작가에게 익숙한 열전체(列傳體)의 전대소설 형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음을 『瑞士建國誌』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 國權이 墮落하야 究竟他人의 奴隸가 된 原因은 卽我國民의 愛國思想이 淺薄하 緣故라. 同是圓顛方趾의 冠帶之族으로 獨히 愛國思想이 淺薄하 것은 一則學士大夫之罪오 二則學士大夫之罪라.

15) 魯曉鵬, 『역사에서 허구로』,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 길, 2001, 160-161쪽.  
 16)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 한길사, 1984, 160쪽 참조.  
 17)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1, 84-86쪽.

余가 間嘗同誌를 對하야 小說著作을 擬議하나 現方報館에 執役함  
으로 暇隙이 苦無홀뿐더러 또 此等著作에 技能이 不及하리라 抱志  
莫遂에 從深慨嘆터니……18)

박은식은 곧 자신이 여가가 없고 능력이 모자라 새로운 문체를 숙지  
하지 못함을 탄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탄식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  
작 활동에 임했던 것은 그의 선택이 독자와의 소통에는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역사·전기소설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본격적  
인 문학 수업을 하지 않은 한말의 지식층이었고, 독자층도 한문을 해독  
할 수 있는 중류 이상의 보수적 계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문학  
형태보다는 전통적 문학 형태에 더 관심이 갔을 것이다. 내용 또한 영웅  
의 일생을 통해 구국의지를 나타내고 일체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모험보다는 작가에게 부담이 적은 전통적인 양식을 고수  
하려 했을 것이다.

역사·전기소설은 이러한 전(傳)의 양식적 서술구조를 따르면서도,  
한편으로 회(回)나 장(章)으로 나누어진 회장체 구성방식을 택하기도 한  
다.<sup>19)</sup> 장지연의 『애국부인전』과 신채호의 『을지문덕』 등이 모두 이러한  
회장체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번역물에 속하는 박은식의  
『서사건국지』 또한 회장체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 회장체 서술방법  
의 선택은 각 회나 장에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소제목으로 요약 제시해  
줌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줄 뿐 아니라 독자의

1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역사·전기소설』 6권, 아세아문화사, 1979, 198쪽.

19) 역사·전기소설의 이러한 서술방법은 1910년대와 1920년대 구활자본 고소설에  
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 유사성이 곧 역사·전기소설과  
구활자본 고소설의 연속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물론 형식적  
인 측면에서 이전의 양식을 답습하고 있지만 그것이 놓여진 층위는 전혀 다른  
것이였다.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유리한 방식이었다. 역사·전기소설의 이러한 서술방법은 1910년대와 1920년대 구활자본 고소설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 유사성이 곧 역사·전기소설과 구활자본 고소설의 연속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1910년대 이후 생산된 구활자본 고소설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양식을 답습하고 있지만 그것이 놓여진 층위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 3. 수용과 변개(變改) - 역사소재 구활자본 고소설의<sup>20)</sup> 생산과 유통

역사·전기소설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신문 잡지 등에 연재 발표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출판된 단행본들조차 판매금지 처분을 받아 회수 당한다.<sup>21)</sup> 이러한 국내 여건의 악화로 주요 작가들은 국외로 망명하거나 칩거함으로써 국내의 정치공간으로부터 퇴장하였다. 일부는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저술활동을 벌였으나 국내에

20) 소설을 활자본으로 인쇄한 것은 1912년 이후의 일이다. 19세기말 새로운 활판 인쇄술이 도입되면서 납활자를 사용하여 서책을 인쇄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납활자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납활자를 구분하여 이를 구활자(舊活字)라고 하며, 논자에 따라서는 이전의 방각본 형태와 비교하여 신활자(新活字)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구활자본'으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한다. 새로운 인쇄 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 구활자본 계통의 소설은 이미 출판된 바 있는 방각본 계통의 소설뿐만 아니라 미처 출판되지 못하였던 필사본 계통의 일부 소설까지를 출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창현, 『이야기문학 연구』, 보고사, 2005, 163-166쪽.

21) 융희 2년(1908년) 구한국법령 6호로 제정된 '출판법'은 일제시대 내내 유지되었고 심지어 해방 후까지 존속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어 출판물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1910년대에 가장 극심했다. 주로 근대계몽기에 나온 역사 전기물들과 조선인들이 발간한 교과서류가 주된 탄압의 대상이었다.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177-180쪽.

서 역사·전기소설이라는 특정한 담론 형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sup>22)</sup> 그것은 근본적으로 특정 정치세력과 이들의 정치적 논리가 국내에서 소멸한 결과였다. 역사·전기소설이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전면적인 계몽과 동원의 정치가 요구했던 하나의 특수한 담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의 역사·전기소설은 한편으론 하나의 자율적 양식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생산했던 담당자로서의 정치세력의 논리와 실천에 의해 규정된 담론이었던 것이다.

객관적인 현실의 악화가 '오늘/여기'의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자 자연스레 '옛날/저기'의 문제를 다루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sup>23)</sup> 그러한 흐름이 활자술의 도입과 맞물리면서 한문단편과 함께 고소설이 신활자의 매체로 대량 출간되며 복고적인 흐름<sup>24)</sup>을 형성하기 시작

22) 국내에서 역사·전기소설이 소멸된 후 역사·전기소설의 전통을 이어 받으며 국외에서 창작된 작품이 신채호의 『꿈하늘』(1916)과 『용과 용의 대격전』(1928)과 같은 경우이다. 신채호는 한일 합방이 임박할 무렵 안창호 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의 창작 체험과 중국이란 공간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일제와의 거리가 이들 작품의 창작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꿈하늘』이나 『용과 용의 대격전』은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의 소설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꿈하늘』과 같은 경우 군담계 영웅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오히려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서사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역사·전기소설에서 다루었던 민족의식의 각성과 촉구라는 동일한 주제가 그대로 지속됨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작품이 원고 상태로만 보존되었을 뿐 창작 당시에는 발표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대 역사담론의 생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거나, 혹은 이들 작품이 이후 역사소설의 고리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23) 한만수, 「영웅인물에서 장애우 인물로 - 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문학의 우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례학술회의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자료집, 2005. 11, 116쪽.

24) 이 시기 한문학과 고소설의 부흥에 관해 김재용 등은 '그 이전까지 반외세·반봉건 운동에 의해 역사의 뒷전으로 내몰렸던 봉건지배계급이 일제의 강점을 계기로 일제와 결탁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자 자신들의 문학이었던 한문학도 동시에 부흥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조선인들의 민족의식과 현실의식

한다. 야담과 고소설은 모두 전시대에 유행했던 문학양식이다. 야담은 한문으로 씌어진 식자층이 즐기던 문학이었음에 반해, 고소설은 한글로 된 중하층의 문학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계층을 독자로 가지고 있던 야담과 고소설은, 새로운 활판 인쇄술이 들어오고 구활자본으로 인쇄된 책<sup>25)</sup>이 출판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의 독자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쏟아져 나온 구활자본 소설은 1930년대 말까지 이어진다. 이들 작품을 모두 통산하면 그 종류가 무려 250여종에 이르며, 이를 낸 출판사도 도합 70여 곳에 이른다.<sup>26)</sup>

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제 침략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183-189쪽 참조.

25) 초창기 구활자본의 체제는 처음에는 크기를 국판으로 하고 내용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내리닫이 조판으로 하였다. 표지는 작품의 내용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대목을 흑백으로 그린 초라한 장정이었다. 그러다 크기를 4·6 배판으로 바꾸고 표지도 몇 가지 색을 쓰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얼룩덜룩하게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으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구활자본' 또는 '딱지본'이라고 하였다. 딱지본이란 대개 책의 표지가 아이들 놀이에 쓰이는 딱지처럼 울긋불긋하게 인쇄되어 있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구활자본이 처음 출판되던 1910년대 초반에는 출판사간에 가격경쟁을 벌여 이야기책 한 권의 값이 파격적인 육전이었으므로 이를 '육전소설(六錢小說)'이라고도 하였다. 소재영·민병삼·김호근, 『한국의 딱지본』, 범우사, 1996, 10-11쪽.

26) 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전체 목록은 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처음으로 활자본 고소설의 전반적인 서지를 밝힌 이능우는 총 202종으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이능우, 「고대소설 구활자본 조사목록」, 『숙대논문집』, 숙명여자대학교, 1968) 서울대학교에서 펴낸 '고전소설 목록'에서는 196종이 정리되어 있다.(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1) 소재영은 필사본, 방각본과 함께 246종의 활자본 고소설을 정리하였다.(소재영, 『고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83) 우쾌제는 249종의 활자본 고소설을 서적상, 출판년도 등과 함께 정리하고 있다.(우쾌제, 「구활자본 고소설의 출판 및 연구현황 검토」,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비교적 최근의 통계로는 이주영(『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9)과 권순궁(『활자본 고전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약 250여종의 작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활자본 고소설의 발굴과 서지 작업은

활판 인쇄술의 도입은 방각이라는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장편물의 출판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단위 시간당 생산해내는 책의 양을 증가시켜 급격하게 팽창하는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1930년 '경무국 도서과(警務局圖書課)'에서 펴낸 『경무회보(警務彙報)』에 따르면 1920년부터 29년까지 단행본으로 출판된 정치·경제·법률·사상·지리·역사 등 총 36개의 주제별 중수 중 단연 수위는 '죽보'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신소설<sup>27)</sup>과 구소설류인데 이 둘을 합치면 '죽보'의 출판 건수와 맞먹는 수의 단행본들이 출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진행형의 과제이다.

- 27) 이른바 딱지본 소설 중 '신소설'의 표기를 달고 출판된 작품들이 있어 주목된다. 『벽부용』(회동서관, 1912), 『절처봉생(絶處逢生)』(박문서관, 1914), 『송죽(松竹)』(박문서관, 1914), 『강명화전(康明花傳)』(신구서림/박문서관, 1925), 『자작부인(子爵夫人)』(박문서관, 1926)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벽부용』과 『절처봉생』은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한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신소설·번안(역)소설』(1978)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계명문화사에서 간행한 『신소설 전집』(1987)에는 각각 5권과 12권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뒤의 세 작품은 '총서'와 '전집'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다. 다만 『자작부인』의 경우 최원식이 「1910년대 친일문학과 근대성 - 최찬식의 경우」(소명출판, 2002)에서 최찬식의 연보를 정리하며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신구서림 간행의 『강명화전』 또한 최찬식의 작품이지만 아직 학계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필자를 알 수 없는 『송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이들 작품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활자본 고소설로도 신소설로도 편입되지 않은 작품들이다. 1920년대 중반까지 '신소설'이란 표기 아래 작품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신소설'이란 용어가 개화기에 생산된 특정한 문학적 양식명을 지칭한 것이었다기보다, 단지 상업적·대중적 수사로써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 28) 신소설과 구소설을 나누는 당시 경무국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계에는 그 둘이 따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신소설' 표기가 되어 있는 작품은 '신소설'로, '고대소설', '고소설' 등의 표기가 되어 있는 작품은 '구소설'로 분류하였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신소설이 가장 많이 출판된 해는 1928년으로 총 122종, 구소설은 1926년 65종이다. 신소설은 대략 1년에 90에서 100종 정도 출판되었으며, 구소설은 평균 50에서 60종 내외의 책이

이처럼 활자본의 등장은 독서시장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전까지 부녀자나 하층 서민들을 중심으로 완만한 영향을 끼쳐왔던 이야기책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카프의 대표적 논객이었던 김기진조차도 당시의 활자본 고소설들이 통속소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저열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 고전소설의 대중 수용 효과를 인정한다.<sup>29)</sup>

이렇듯 새로운 인쇄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 구활자본 계통의 소설은 일반 대중 독자뿐 아니라 사회주의 문학의 입장에서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경향이었다. 당시에 유통되었던 구활자본 고소설들은 필사본이나 방각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신작들과, 이미 출판된 바 있는 방각본 계통의 소설들, 그리고 미처 출판되지 못하였던 필사본 계통의 일부 소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방각본이나 필사본으로부터 변이를 보이며 간행된 작품들은 다시 두 가지의 경우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sup>30)</sup> 하나는 이전 시대에

출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警務局圖書課, 「最近10年間に於ける諺文出版物の趨勢」, 『警務彙報』 288호, 1930. 4, 73-74쪽.

29) “재래의 소위 이야기冊이라는 …… 이것들은 모다 通俗小說의 圈外에도 참석하지 못하여 왔다. 이것들 움푹푹한 표지에 四號活字를 바다가지고 文學의 圈外에 멀리 쫓기어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新聞紙에서 길러낸 文藝의 使徒들의 通俗小說보다도 이것들 이야기冊이 훨씬 더 놀랄만큼 比較할 수도 업게 大衆 속으로 傳播되어 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 4. 14. 김기진은 활자본 고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놀랄만한 대중성에 견인되어, 고전소설의 형식을 활용하고 거기에 이념적 실질을 담음으로써 대중 각성을 추구하자는 이른바 ‘문학대중화론’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그의 ‘문학대중화론’은 문학작품의 생산과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달 매체, 최종적 소비자인 독자 수용에 대해 우리 문단 최초로 포괄적인 논의를 촉발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문학대중화논쟁’에 관해서는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173~220쪽 참조.

30) 장효현, 「근대전환기 고전소설 수용의 역사성」, 홍일식 외, 『근대전환기의 언어와 문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91-94쪽 참조.



널리 인기를 얻어 수용되던 장편소설의 내용 가운데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떼어 재구성해 간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대체로 적은 분량이어서 저가로 공급하기에 알맞도록 하려는 상업적인 목적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하나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배경과 인명과 표현 방법에 걸쳐 윤색을 가하는 경우이다.<sup>31)</sup> 『趙生員傳』, 『鳳凰臺』, 『能見難思』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32)</sup>

이들 중 역사소설류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은 전 시기 역사·전기 소설과 마찬가지로 세종대왕·김유신·이순신·을지문덕·사명당·장감찬·홍윤성·한명회 등 과거의 군주(君主)나 명신(名臣), 명장(名將) 등 민족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과, 중국을 배경으로 씌어진 필사본으로 존재했던 군담을 소재로 한 영웅소설들, 그리고 중국의 번역 소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족영웅을 다룬 역사소설과 이른바 군담계 영웅소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독자들의 영웅 출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적절한 양식이었다. 이것이 상업적인 출판 유통업자와 결합하면서 대중적인 호응을 얻게 된 것이다.

구활자본 고소설 중 이본과 개작까지를 포함하면 역사소설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작품의 수는 약 100여 종에 이른다. 그 중 삼국지<sup>33)</sup>, 수호지,

31) 그 외에도 신소설 작가인 이해조가 판소리 사설을 채록하여 손질한 후 『매일신보』에 연재한 후 활자본으로 간행한 『獄中花』, 『江上蓮』, 『燕의 脚』, 『兎의 肝』 등도 모두 변화된 시대의 독자층의 기호에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해조는 신작으로 세조 때의 인물인 홍윤성(洪允成)을 다룬 『洪將軍傳』과 한명회(韓明澮)를 주인공으로 한 『韓氏報應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2) 『장학사전』은 현재 『소씨전』, 『소부인전』, 『장한림전』, 『완월루』 등 여러 이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소씨전』을 저본으로 구활자본으로 개작한 작품이 『조생원전』이다. 『능견난사』는 『금령전(金鈴傳)』을 활자본으로 개작한 작품이다. 활자본 『봉황대』의 개작과 변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토록 한다. 『장학사전』의 변이와 개작 양상에 관해서는 김복순, 「『장학사전』-『완월루』의 변화 양상 고찰」,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284~295쪽 참조.

초한지 등과 같이 중국의 작품을 직접 번역한 작품들과 그의 이본들을 제외하면, 국내의 역사 관련 소설들은 약 50여종에 이른다.<sup>34)</sup>

이들은 다시 ①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과, ②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을 소설의 지배적인 요소로 삼으면서 허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는 작품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인물을 소설화하는 경우에는 인물을 둘러싼 설화나 민담의 요소들이 개입되어 실존 인물을 사실보다 확대 과장하여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임경업전』의 경우 임경업에 관한 유문(遺文)·비문·행장·연보·사당봉안제문(祠堂奉安祭文)·현령록(顯靈錄) 등의 실기(實記)를 모아 1791년에 간행된 『임충민공실기』를 참고하고, 민간에서 구전되는 설화를 토대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우치전』 역시 조선 중조 때의 실존 인물의 내력에 여러 문헌에 전해지는 전설이 보태어져 소설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②의 사례에서는 과거 역사적 배경 속에 허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면서, 전체 서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각각의 작품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33) 구활자본 고소설 중 단일소재로 가장 많은 관련서사와 이본들을 생산해내며 간행된 작품은 『춘향전』으로 총 97회이다. 그 다음이 『삼국지』인데, 『삼국대전』, 『수정삼국지』, 『산수삼국지』, 『산양대전』, 『오관잡장기』, 『황부인전』, 『관운장실기』, 『장비마초실기』, 『조자룡실기』 등 약 30여종에 이르는 작품들이 43회에 걸쳐 간행되었다.

34) 50여종이란 수치는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된 경우에도 동일 표제로 발표된 작품의 경우에는 1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만약 동일 표제 작품의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출판사에서 간행된 것들을 각각 별도의 작품으로 산출하면 전체 작품의 수는 약 170여종에 이른다. 예컨대 『유충렬전』의 경우 1913년에서 1930년까지 17년간 동일한 표제로 14개의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5, 46-48쪽 참조.

① 역사적 인물을 소설화한 작품 : 강감찬전, 고려 강시중전, 고려명장 강감찬실기, 곽분양전, 곽분양실기, 곽분양충행록, 곽해룡전, 쌍두장군전, 김태자전, 김유신실기, 남이장군실기, 박문수전, 사명당전, 생육신전, 세종대왕실기, 신숙주부전, 영조대왕야순기, 을지문덕전, 인조대왕실기, 임경업전, 임오군란기, 홍경래실기, 박씨전, 박씨부인전, 소진장의전, 전우치전, 최고운전, 한씨보응록, 홍길동전 등.

② 역사적 배경 속에 허구적 인물을 등장시키는 작품 : 김진옥전, 남정팔난기, 유문성전, 유충렬전, 이대봉전, 봉황대, 조웅전, 소대성전, 신유복전, 이린전, 이해룡전, 장백전, 장풍운전, 장익성전, 정수정전, 한후룡전, 현수문전, 홍계월전, 황장군전 등.

역사적 인물을 소설화한 경우 대부분 국내의 위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곽분양전』과 그의 이본들, 그리고 『소진장의전』과 같이 중국의 역사 영웅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발견된다.<sup>35)</sup> 이와 달리 역사적 배경 속에 허구적 인물을 등장시키는 작품의 경우는 대부분 서사의 주된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창작 역사소설의 경우 국내를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할 때보다 중국으로 설정하는 것이 작가 상상력의 진폭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36)</sup>

35) 『곽분양전』은 당나라의 실존 인물이었던 곽자의(郭子儀)의 생애를 소설화한 작품이며, 『소진장의전』은 중국 전국시대 책사(策士)의 제1인자로 불리던 소진과 장의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36) 위에서 ①의 항목으로 분류한 『김태자전』의 경우 엄밀하게 말해서 ①과 ②의 경계에 서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태자전』은 신라 태자 김소선(金簫仙)의

고전소설이 이 시기에 수용되는 현상은 그 자체 소재와 기법의 측면에서 봉건적, 전근대적 요소를 기본적 한계로 지니고 있는 것이고,<sup>37)</sup> 대중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는 흥미를 위주로 한 통속성에 연유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활자본 고전소설들은 봉건 유제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무산계급까지를 광범위한 수용층으로 삼으면서,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독자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충족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고전소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한 내용의 한계와 대중 수용의 비좁은 진폭의 이중적 한계 안에서 존재했던 것이다.

대중적 취향에 주목하게 되면서, 작품은 평균적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게 되고, 나아가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도 동질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기존에 호평을 받았던 작품 유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영웅소설이나 군담소설과 같은 전대

---

일대기를 다룬 작품으로, 19세기 후반에 서유영(徐有英)이 지은 고전소설 육미당기(六美堂記)의 번역 축약본이다. 주인공 김소선의 아버지는 신라 제39대 소성왕이고, 소설에 김소선으로 나오는 소성왕의 실제 아들은 신라 제40대 예장왕으로 그는 숙부인 헌덕에게 살해당했던 비운의 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작가 스스로도 허구적 작품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불경 소재 『선우태자전(善友太子傳)』과 그것을 소설화한 『적성의전(翟成義傳)』, 그리고 『삼한습유(三韓拾遺)』, 『옥루몽(玉樓夢)』 등 다른 작품의 화소(話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태자전』은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②의 경우에 더 가까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최경환, 『『六美堂記』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156~162쪽 참조.

37) 물론 모든 작품을 '전근대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유문성전」과 같은 경우, 여성 주인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가문이나 관습보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애정의 중시와 같은 모티프들은 개인적인 자각을 중시하는 근대성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방법론」,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3, 182~186쪽 참조.)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이므로 구활자본 고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前代)에 많은 호응을 얻었던 작품의 유형들이 집중적으로 발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조웅전』은 활자본 이전 시기에도 필사본 160여 종을 비롯하여 판각본으로 경판·완판·안성판으로 간행된 바 있는 군담소설류 중 가장 널리 읽혔던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가나 출판사의 입장에서 대중성이 확보된 안전한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활자본 『조웅전』은 1914년에서 1935년까지 20년이 넘게 10개 출판사가 넘는 곳에서 총 22회의 간행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작품이 부분적 변용을 거쳐 계속 간행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방, 발췌, 축약 등도 생겨난다. 기존 '전(傳)'의 형태를 '실기(實記)'로 바꾸거나, 내용에 변개를 피해 만든 이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유신전』(『김유신실기』, 『홍무왕삼한전』), 『곽분양전』(『곽분양실기』, 『곽분양총행록』), 『이순신전』(『이순신실기』) 등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강감찬전』의 경우는 『고려강시중전』, 『고려명장 강감찬실기』와 같은 이본들과 함께 1908년에서 1926년까지 근 20년 동안 출판 유통되기도 한다.

이처럼 구활자본 고소설들은 중판을 거듭하며 외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동일한 작품을 발행하여 판매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중에는 제작자 나름대로 시대적 조건과 독자층을 고려하여 내용을 변개(變改)한 작품들도 다수 발견된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에 여러 형태의 이본이 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개작을 통한 작품의 변개는 문체를 변형시키거나 원래 있던 내용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모티프를 첨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 예컨대 『이대봉전』<sup>38)</sup>의 개작본인 『봉황대』는 제목을 바꾸고 어려운 한자 어휘를

없애거나 통속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끌려하였다.

그 부인이 듣고 즉시 한림덕에 가서 소저를 대하야 조흔 말로 위로하  
다가 왕승상이 청혼한 말을 이르니 ……39)

- 『이대봉전』

장준이 즐겨 허락하고 집에 도라와 안히 진씨를 보내여 쇼저와 슈작  
하다가 승상왕희의 아들을 입에 춤이업시 일긱고 그후 혼인말을 자  
어닉여 로구장이년의 과부호리듯 거진 한시간이나 감언리설노 쓸긱  
치 중언부언하며 쏘이거늘……40)

- 『봉황대』

부처가 점지하여 태어난 이대봉(李大鳳)과 장애봉(張愛鳳)은 어려서  
약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우승상이었던 왕희는 소문이 자자한 이대봉의  
정혼자 '장이봉(장이황)'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고자 한다. 위의 장면  
은 왕희의 부탁을 받은 '이봉(이황)'의 친척 '장준'의 아내가 '이봉(이황)  
을 찾아와 그 말을 전하는 장면이다. 같은 설정하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표현 방법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조흔 말로 위로"하던 것이 "쇼저  
와 슈작하다가"로 바뀌고, "청혼한 말을 이르니"하는 대목은 "로구장이

- 38) 『이대봉전』은 전대의 영웅소설이 구활자본으로 여전히 많이 읽혔음을 입증해주는 작품이다. "일조웅 이대봉"이란 말은 당시 『조웅전』과 『이대봉전』의 인기를 반영하는 속언 중에 하나였다. 조희웅, 『이야기문학 모꼬지』, 박이정출판사, 1995, 160쪽. 『이대봉전』은 방각본으로는 완판만 존재하지만, 활자본으로는 중판을 거듭하며 14회나 간행되었다. 판이 거듭되면서 출판사간의 경쟁으로 처음에 30전이던 책값이 20전까지 내려가고, 책값이 하락하자 전체 분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주영, 앞의 책, 159~162쪽.
- 39) 「리대봉전」,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11, 은하출판사, 1983, 402쪽.
- 40) 「봉황대」,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20, 은하출판사, 1983, 349쪽.

년의 과부호리듯 …… 감언리설노 쓸긋치 중언부언하며 쏘이거늘”로 바뀌어져 있다.

이처럼 『봉황대』는 종종 세간의 통속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체통이나 격식을 중요시하는 양반네의 풍모를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인공의 모친, 조정의 제일이라는 ‘리부상서’의 아내 양씨부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41)</sup> 원작의 개작본인 『봉황대』는 좀더 대중적인 취향에 맞춘 설정과 문체로 지식층이 아니라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두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개작본이었던 『봉황대』는 전통 신앙이나 불교적인 설정과 모티프들이 사용되었던 『이대봉전』과는 달리, 기독교적인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당시 증가 추세에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sup>42)</sup>을 독자층으로 겨냥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이대봉전』에서 이대봉을 도와주는 ‘던축국 금화산 빅운암의 로승’은 『봉황대』에서 ‘유덕국 빅운동의 성소노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부처를 모시는 암자와 시주를 기록하는 권선은, 『봉황대』에서 처소, 연보금을 기록하는 ‘연보척’이 된다. 또한 『이대봉전』에서는 장익봉(장익황)이 이익과 이대봉 부자의 종적을 알고자 바닷가로 나아가 황천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봉황대』에서는 같은 장면

41) “엇지라 사랑의 부즈여 무인절도에 가오면 어니세월에 다시 만나오며 나는 누를 의지하고 남은 세월을 보내리오 하늘에 견우직녀성은 일년일도 은하수에 오작교를 건너 상봉하거니와 오천리 빅설도는 나는 시도 출입지 못하는 곳이라 엇지 상봉하기를 바라리오 하며 대성통곡하니……” 위의 책, 344쪽.

42)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884년이었으며, 1900년대에는 부흥운동과 100만명 구령운동을 펼쳐 급격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1916년에는 감리교에서 「신학세계(神學世界)」를, 1918년에는 장로교에서 「신학지남(神學指南)」을, 1923년에는 민간 평신도 단체인 조선기독교 창문사(彰文社)에서 「신생명」을 창간하여 신학계는 활기를 띠게 된다.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러 ‘한국 신학의 정초기’를 맞게 된다. 전택부, 『한국교회 발전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39쪽.

에서 "또 공작(이대봉: 필자주)를 위하야 기도하니 널오디 죄인 의황은 하느님의 경비하며 기도하옵노니 하늘이 높하시나 나진말슴을 굽어드르소서"<sup>43)</sup>와 같이 기독교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모티프들을 도입하고, 한자어를 가능한 배제하며 익숙한 구투의 문체를 사용하는 등 『봉황대』의 작자는 새로운 독자층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기대에 따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대봉전』이 1914년에서 1926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던 반면, 『봉황대』는 1914년에서 1916년까지 3차례의 간행에 그치고 만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작품을 선호하는 성향의 독자들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독자층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4)</sup> 이 시기의 구활자본 고소설들이 전대(前代)에 많이 읽혔던 역사소설이나 영웅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대봉전』에서 『봉황대』로 개작이 진행되면서 영웅담이나 역사적인 인물에 관련된 서술이 약화된 것이 오히려 독자들에게는 흥미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익숙한 '전(傳)'의 양식이 독자들에게는 손쉽게 작품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한 요인이었던 것이다.<sup>45)</sup> 결

43) 위의 책, 415~417쪽.

44) 천정환은 일제하 소설의 독자층을 설명하면서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으로 구분한다. 전통적 독자층은 '노동자와 농민', '양반', '부녀자' 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독자 부류와 그들이 향유하는 소설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와 출판사 모두 각기 취향이 다른 이들 독자층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으며, 한편으로 독자층들 사이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다. 천정환, 앞의 책, 52~58쪽 참조.

45) 『이대봉전』에서는 위와 같이 이대봉이 남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인물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이대봉의 아버지 이익의 정치적 지위와 인간 됨됨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함으로써 영웅담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 과거 사실을 설명하고 시간적 압축을 시도하는 설명적 서사 방법은 '전'의 두드러진 기술방법



과적으로 '전'의 양식과 영웅담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봉황대』의 구성은 새로운 것이기는 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되지 못했던 것이다.

#### 4. 역사·전기소설과 구할자본 고소설의 역사차용 방식

지금까지 확인된 약 250여종의 구할자본 고소설 중 역사관련 서사가 100여종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독자층의 확대를 통해 역사 소재 할자본 고소설들은 근대 역사소설이 발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인물의 위인적 면모나 왕조사나 궁중비사 중심의 사건은 근대 역사소설에 그대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궁중비사나 권력투쟁사를 다루는 방식은 역사적 총체성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고소설의 유산은 근대 역사소설이 통속적 시대물로 떨어지는 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통속성 이전에 역사를 소재로 한 많은 이야기책들이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필사본이나 방각본 시대에는 역사의 자유로운 해석에 대한 금기로 인해 풍부한 역사소설의 전통이 확립되지 못했다. 조선왕조의 중세적 통치 질서는 역사의 해석을 규범화하고 자료를 독점했다. 국사 개설 및 전왕조의 시대사를 국가에서 맡아 편찬하고, 당대의 역사는 실록에다 기록했으며 공개하지 않았다. 민간에서 야사를 저술할 수는 있었으나, 자료 편록에 그치고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다.<sup>46)</sup>

이기도 하다. 그러나 『봉황대』는 이러한 부분을 생략하고 기독교적인 논조에 어울리는 선악론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4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94, 307쪽.

역사의 기록은 관에서 주도했으며, 담론은 사회에서 최대한 결합적이고  
구심적인 효과를 낼도록 통제되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과거에 대한 접근  
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즉 이해와 설명에 대한 해석학  
이어야 했다.<sup>47)</sup>

근대로 들어서면서 이런 제약은 없어져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  
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역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  
는 것 자체가 중세의 역사관을 청산하는 의의가 있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한 중세적 규제를 철폐하고 민족사 재구성에 착수할 시점에 일제의  
국권 침탈이 일어났다. 이제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록이나 해석  
의 문제가 아닌 제국주의에 맞서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곧, 역사 이해  
의 근대적 자각이 일제에 대한 항거 의지와 결부되어 역사·전기소설의  
발전을 촉진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한일합방 이후 이제는 역사적 정통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  
제의 간섭과 출판 검열 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하의 모든  
출판물은 '출판법' 상의 허가제에 의해 발간되었다. 조선인이 도서를 출  
판하려면 출판 전에 고본(稿本)을 첨부하여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  
다.<sup>48)</sup> 활자본 고소설 또한 총독부 경무국의 '납본필증'을 받아야 출판,

47) Prasenjit Duara, 문명기·손승희 역,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2004, 46-47쪽.

48) 하지만 일본인 및 기타의 외국인도 출판된 후 제본 두 책을 제출하면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인에게만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적용하고 일본인과 외국인에게는 신문규칙과 출판규칙을 적용한 때문이었다. 한편 잡지는 신문지법에 의하지 않으면 정치·시사·평론을 게재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31년에 이르러서부터는 신문지법에 의한 잡지 발행은 새로 허가하지 않는 대신에 출판법에 의한 잡지도 정치·시사·평론을 게재하는 것을 묵인하게 되고, 1933년 9월부터는 검열제를 완화하여 일부 잡지는 교정쇄 납본제를 적용하였다. 김근수, 『한국도서해제논고』, 청록출판사, 1979, 403~405쪽. 정근식, 「일제하 검열의 실행과 검열관」, 동아시아 학술원 연례학술회의 발표집, 『식민지 검열체제의 역사적 성

판매가 가능했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은 곧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과 이 시기 역사소재 활자본 고소설의 성격을 구분 짓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두 양식 모두 표면적으로는 역사를 차용한 문학 형식이었지만 그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국가'의 소멸 위기에서 역사·전기소설들이 공통적으로 역사를 차용하여 '민족'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씌어진 것이라면, 오히려 이 시기 구활자본 고소설들은 상업적인 의도에서 대중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매개체로서 전대 양식과 역사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1910년대와 20년대 역사소재 활자본 고소설의 형성이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이 지니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였다기보다는 양식적 계승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10년대 이후 역사소재 활자본 고소설에서 발견되는 '-전(傳)'의 형식 역시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들과 같은 작가 세계관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이들 작품이 통속화되고 대중 출판물로 자리 잡으면서 좀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 애국 계몽의 기획자이기도 했던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의 작가들은 '-전(傳)'을 통하여 "성인의 가르침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야 한다거나 국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상정을 표현할 수 있다."<sup>49)</sup>고 믿었다. 따라서 과거 영웅의 호출은 곧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을 통한 지배적 담론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근대 계몽기 애국 계몽의 주체들은 '영웅이란 성스런 텍스트'를 통하여 애국계몽의 기획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다음의 『水軍第一偉人 李舜臣』에서도 이점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격』, 성균관대학교, 2004. 12. 17, 1-24쪽.

49) 이보경, 『문(文)과 노벨(novel)의 결혼』, 문학과지성사, 2002, 149쪽.

大抵 水軍의 第一偉人을 有하고 鐵甲船 創造에 鼻祖된 我國으로 今日에 至하여 彼 海權最大의 國과 比較하기는 姑捨하고 竟乃 國家란 名詞도 若存若亡의 悲境에 陷하였스니 …… 茲에 李舜臣傳을 撰하여 苦痛에 陷한 我國民에게 餉호노니 凡 我善男善女는 此를 模範하며 此를 步趨하여 荊天棘道를 踏하며 苦海難關을 超過호지 어다. 上天이 二十世紀의 太平洋을 莊嚴하고 第二李舜臣을 待호나 나라.<sup>50)</sup>

위의 인용에서 작가는 한 때 우리에게 수군제일 위인이며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이순신이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란 명사마저도 존망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한탄하고 있다. 작가의 창작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순신전을 선택한 이유가 곧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 고통 난관을 극복코자 함이라는 것이다. 민족영웅의 사적(事蹟)을 동원하여 이른바 국가정신을 진작시키려는 역사 전기물의 의도가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나아가 20세기 제2의 이순신을 기다린다는 진술은, 결국 영웅의 호출 의도가 과거를 형상화하기보다는 당대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sup>51)</sup>

50) 錦頰山人, 「水軍第一偉人 李舜臣」, 『대한매일신보』, 1908. 8. 18.

51) 신채호, 이광수, 이은상, 김탁환, 김훈의 역사소설 등에서 최근의 TV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또한 각종 언론 매체와 공적 역사 안에서 이순신은 가장 빈번히 소환된 영웅 중에 하나이다. 시대를 막론한 영웅에 대한 호출은 민족적 영웅으로 상징되는 ‘이순신’이란 텍스트가 얼마든지 변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최근에는 대학에 ‘이순신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정기적으로 『이순신 연구논총』(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간행)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연구소 창립의 목적은 ‘이순신의 효사상과 나라 사랑정신’을 기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사실적 연구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학술적 연구를 도모하며 그의 문무겸비, 즉 문학성과 용맹성을 재조명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한 21세기형 인성교육의 모델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요컨대 이순신의 ‘충효사상’을 본받아 모범으로 삼자는 것이다.

전(傳)이란 사적(事蹟)으로 남길만한 인물의 행적을 가계와 행적과 평결로 이루어진 형식에 담아 기록하는 문학양식이다.<sup>52)</sup> 따라서 전(傳)은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낸 가치'를 다시 추인하는 형식이 된다. 그 추인의 주체로서 '영웅'이 요구되는 공간이 바로 근대계몽기의 공간이었다.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들은 '공동체의 운명을 발견하는 개인'을 호출하여 존재하는 현실과 존재해야만 하는 당위적 이상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합방이후 구활자본 고소설에서 과거 영웅의 호출 방식은 근대계몽기의 그것처럼 '애국계몽'을 위해 형상화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좀더 익숙한 양식으로, 좀더 많은 독자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으로서 과거의 '역사'와 '영웅'이 호출되는 것이다. 역사·전기소설과의 이러한 차이는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일제 식민지 통치라는 객관적 조건이 그 배경이 된다.

영웅의 호출 방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표현 형태인 표기법과 조판 방식에서도 구활자본 고소설은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윤을 고려한 상업자본에 의한 생산과 유통, 그의 대중적 소비라는 메커니즘은 이전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보다 독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품의 출판 형식에서도 여러 변화가 발견된다. 작품 제목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변화,<sup>53)</sup> 띄어쓰기, 한자(漢字) 병기, 단락

---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순신'의 활용은, 천황을 중심으로 충효를 강조하였던 일제시대로부터, 연구소가 밝히고 있듯 "박정희 대통령 이후 각광받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통해 재생되고 있다. 『이순신 연구 논총』 창간호, 2003. 2. 참조.

52) 김찬기,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전(傳)』, 소명출판, 2004, 123쪽.

구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것은 표기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전의 역사·전기 소설에서는 국문전용과 국한문 혼용 두 가지 표기 방식이 모두 사용되지만, 국한문 혼용이 더욱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구활자본 고소설에서는 국한문 혼용의 예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사실 1900년대 이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국한문체'는 '국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만들자는 문제의식에서 고안해 낸 것이었다. 전통 한학의 수양을 쌓은 지식인들에게 국문은 낯설고 불편한 양식이었을 뿐 아니라 접잡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한문체의 사용은 난해한 고문투를 경계하되 한자(漢字)의 의미를 인정함으로써 그 절충안을 모색한 것이었다. 한자와 순국문, 국한문혼용의 표기법에 대한 논란은 표기문자의 선택을 넘어 새로운 담론층을 구성하는 대상을 한정짓는 것이기도 하다. 국한문체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국문에서 시작하여 한문까지 나아가는 교과를 구상함으로써 국민의 계몽을 수행하려 한 것이다.<sup>54)</sup> 국한문체의 구상에서 국민은, 한자를 사용하던 식자층과 한글을 사용하던 그 외의 사람들을 모두 포섭하려한 것이었다.

구활자본 고소설이 생산되던 초기에는 작가와 출판업자들도 그 모두를 독자로 상정하고 순한글체와 국한문체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는 한글이 소설 작품의 주요 표기 수

53) 구활자본 고소설의 절반 이상이 '傳'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외에는 『義人の 무덤』(성문당서점, 1916), 『老處女 孤獨閣氏』(광명서관, 1916), 『異性の 선물』(영창서관, 1925) 등 실제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목을 붙이거나, '記·夢·錄·歌·曲' 등의 표기들이 발견된다.

54) 국한문체의 사용과 국민의 형성에 관해서는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136~144쪽 참조.

단으로 정착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글이 당시 지배적인 언어로 정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구활자본 고소설의 독자층이 식자층보다는 일반 대중들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부 식자층을 제외하면 역시 한글이 익숙한 표기법이었던 셈이다.<sup>55)</sup> 이처럼 근대 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 이후 등장한 구활자본 고소설은 내용과 형식에서 일반 대중을 철저히 의식하며 생산됨으로써, 이전의 역사담론의 생산과 소비가 주로 식자층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을, 대중적인 차원에까지 확장시켰던 것이다.

## 5. 남은 과제들 - 구활자본 고소설의 소설사적 위치

일반적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역사·전기소설이 가지는 의의는 구활자본 고소설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왔다. 그 둘은 명확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가지 양식 모두 지난 역사를 다시 호출해내고 재구성하여 당대의 역사담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역사·전기소설이 가지는 문학사적 가치와 의미는 충분히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폄하되거나 배제되어왔던 구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접근과 사적 의미 또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구활자본 고소설은 주로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생산되고 소비되었던 '역사'의 대중

55) 특히 동일 작품의 경우에는 초판에서 중판으로 판을 거듭하는 경우에 한자 병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자에 대한 반감이나 한글 쓰기에 대한 인식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비용절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자병기를 생략하거나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출판업자는 생산비를 줄여 비용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137~143쪽 참조.

적 확산에 기여하였다. 즉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통해 '역사'를 대중적인 생산과 소비에 이르게 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적 조건과의 관련 속에서 역사에 관한 담론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소설의 생산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소설의 창출과 이의 수용을 따져 보는 일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 결국 구활자본 고전 소설이 가지는 사적(史的) 의의 중의 하나는 활자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량생산은 곧 대량소비로 이어진다. 방각본에 비해 활자본 출판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므로 소설의 책값은 낮아지고,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sup>56)</sup>

따라서 이제 작가나 출판업자, 서적상들은 보다 더 독자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작가나 출판업자의 개인적 취향보다는 대중적 취향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구활자본 고소설은 계층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의해 향유되기에 이른다. 18·19세기에 중간 계층의 자산 계급이 고전소설의 수용층이었던 데 반하여, 이 시기에 와서는 수용의 폭이 확장되어 농민, 노동자와 같은 무산 계급까지<sup>57)</sup> 고전 소설의 수용층이 확대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1912년 새로운 인쇄기술의 도입으로 생산 유통되기에 이른 구활자본 고소설은, 1915년에서 1918년까지 가장 많은 간행 횟수를 기록하며 이

56) 위의 책, 182쪽.

57) “…… 有象無象의 이야기冊(구활자본 고소설)들이 大概 누구의 손으로 팔리어 가느냐 하면 學生보다도 婦人보다도 農民과 그리고는 勞動者에게로 팔리어 간다. 장거리나 큰 길거리에서 行商人이 벌려 노흔 이짜위 冊들은 쯤쌀되나 北魚 사마리나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꾼 卽 農民이 사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 4. 14.



른바 전성기를 구가한다. 삼일 운동을 전후하여 잠시 침체되었던 구활자본 고소설은 1921년에서 1926년까지 다시 활황을 이룬다. 그러다 1927년부터 그 뚜렷한 쇠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통계에 따르면<sup>58)</sup> 1925년 구활자본 고소설의 발행 횟수 112회, 1926년 총 78회에 달하던 것이, 1927년에 이르면 전년도 대비 8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 1931년 이후에는 신규 발행 작품이 없거나 한 두 종에 불과하며, 출판계가 활황기에 있었던 1935년을 제외하고는 각 연도별 총 발행 횟수도 10회를 넘지 않는다. 이후로는 새로운 작품의 출간이 급감할 뿐 아니라, 출판허가를 출원한 건 수 또한 크게 줄어든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걸친 경제 공황은 일제 지배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1931년 9월 일제에 의한 대륙 침략의 개시는 조선에 대한 종전의 산미(産米) 수탈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전채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의 악화는 구활자본 고소설의 퇴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던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영세한 출판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판 유통되었던 구활자본 고소설들은 이러한 외적 조건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열악한 창작 환경은 작가들로 하여금 이전 작업에 등을 돌리게 했다. 대중의 수요에 기반을 둔 구활자본 고소설은 문화적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작품의 생산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생산, 유통, 소비의 메커니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작가들의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고정란을 확보하지 못한 작가들은 출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작품을 축약하거나 개작하지만, 이는 곧 텍스트를 더욱더 열악한 상태로 만드는 것

58) 이주영, 앞의 책, 34~41쪽.

이 되고 말았으며, 결국 더 이상 독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된다. 열악한 창작 환경과 출판 조건은 곧 작품의 통속성과 상품성의 강화로 이어진다. 구활자본 고소설이 지니는 통속성과 상품성은 그 쇠퇴를 촉진시킨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구활자본 고소설의 쇠퇴와 맞물려 있는 1927년을 전후한 시기는 일제의 검열이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 『개벽』이 해체되고 새로운 민족운동의 모색으로 신간회가 창립된 때이기도 하다. 구활자본 고소설이 쇠퇴의 길로 들어선 시점에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야담사'가 설립되면서 조직적인 야담부흥운동이 전개되며, 본격적으로 야담이 생산 유통되기 시작한다. 1910년 초반부터 20년대 중반까지 대중의 역사소비 방식의 중요한 매체로 기능했던 구활자본 고소설의 역할이 야담에게로 이행된 셈이다.

1920년대 후반 역사물 보급 운동은 위기의식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류의 생산과 1910년대 역사연구 및 대중화 운동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야담운동은 '역사를 통한 민중 교화운동'<sup>59)</sup>을 표방하는 한편, 당대 민중예술, 민중오락으로 선전되기도 하였다.<sup>60)</sup> 이러한 인식은 1920년대 역사의 문예화 논의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역사소설의 맥락과 함께 위치한다. 역사를 대중화하는

59) 김진구, 「野談出現必然性 5-우리 朝鮮의 客觀的情勢로 보아서」, 『동아일보』, 1928. 2. 6.

60) 당시의 야담대회는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한 민중계몽'이란 조선 야담사의 창립 취지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발송자 경성종로경찰서장, 수신자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으로 되어 있는 '조선야담사 제1회 야담회 개최의 건'이란 문서에는 집회 장소와 참석자들의 면면들, 그리고 그들의 동향 등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조선야담사 창립 자체가 이미 일제의 요주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이 문서는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 서류'로 분류되어 있다. 『京鍾警高秘』 第14087號, 1927. 12. 12.

문에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구활자본 고소설과 야담, 역사소설은 공통된 지평 속에 놓이는 것이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1910년대에서 192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던 구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그 이유는 우선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순수문학과 통속문학 등의 구도 아래에서 이들 작품을 지금까지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각 분과의 경계를 나누고 연구 대상을 한정 짓는 오래된 관행 또한 이들 작품에 대한 접근을 더디게 만들었다. 구활자본 고소설의 경우, 시기적으로는 근대 이후에 생산된 것이면서도 내용상 고소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두 분과 어디에서도 연구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각 분과 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 학문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 이들 작품에 대한 실상이 보다 뚜렷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활자 인쇄술의 도입과 그로 인한 출판 시장의 형성, 전반적인 작품의 생산과 유통, 대중적 소비에 대한 천착은 국문학 뿐 아니라 제반 학문의 영역까지 포괄하며 동시에 그 시대 일반 대중 독자의 형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 작품의 복원은 이른바 본격문학 혹은 고급문학 중심으로 조명된 한국문학사의 결락을 채우며, 나아가 그것의 문학사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한국문학사의 충위를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아세아문화사, 197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1.  
송하춘 편, 『신소설 전집』, 계명문화사, 1987.  
이능우, 『고대소설 구활자본 조사목록』, 『숙대논문집』, 숙명여자대학교, 1968.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은하출판사, 1983.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역사·전기소설』, 아세아문화사, 1979.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무휘보』 등

-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권순궁, 『활자본 고전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1.  
김근수, 『한국도서해제논고』, 청록출판사, 1979.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173~220쪽 참조.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출판사, 1997.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찬기,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전(傳)』, 소명출판, 2004.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서종문, 『조선조 후기의 소설의 수용』, 사재동 편,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V, 중앙문화사, 1995.  
소재영, 『고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83.  
소재영·민병삼·김호근, 『한국의 딱지본』, 범우사, 1996.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 한길사, 1984.  
신용하, 『한국 근대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문학과지성사, 2001.  
우래제, 『구활자본 고소설의 출판 및 연구현황 검토』,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방법론』, 연세대 박사논문, 1993.  
이보경, 『문(文)과 노벨(novel)의 결혼』, 문학과지성사, 2002.

- 이순신연구소 편, 『이순신 연구 논총』, 2003. 2.
-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9.
- 이창현, 『이야기문학 연구』, 보고사, 2005.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 임화, 『신문학사』, 임규찬·한진일 편, 한길사, 1993, 8.
- 장효현, 「근대전환기 고전소설 수용의 역사성」, 홍일식 외, 『근대전환기의 언어와 문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 전택부, 『한국교회 발전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정근식, 「일제하 검열의 실행과 검열관」, 동아시아 학술원 연례학술회의 발표집, 『식민지 검열체제의 역사적 성격』, 성균관대학교, 2004. 12. 1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94.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 최경환, 「『六美堂記』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 하정일, 「탈식민의 역학」, 2005학년도 민족문화사학회 기초학문육성지원팀 학술회의 자료집, 2005년 4월 23일 성균관대학교.
- 한만수, 「영웅인물에서 장애우 인물로 - 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문학의 우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단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2005. 11.
- 警務局圖書課, 「最近10年間に於ける諺文出版物の趨勢」, 『警務彙報』 288호, 1930. 4.
- 小森陽一, 「문학으로서의 역사, 역사로서의 문학」, 小森陽一 · 高橋哲哉 편, 이규수 역,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2002.
- 魯曉鵬, 조미원 · 박계화 · 손수영 역,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 G. Lucás,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거름, 1987.
- Prasnjit Duara, 문명기 · 손승희 역,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2004.

## Development of Modern Historic Discourse and Novelistic Acceptance

- Focusing on the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and six-pence pop novels

Lee Seung-Yun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diverse historic discourses and novelistic acceptance ranging from a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o the 1910s were reviewed. In many cases, historic discourse is produced in collusion or alliance with complicated ideologies including nationalism, and sometimes works as a crucial political weapon.

The literary approach through diverse discourses is not to identify fixed features of a style called a novel.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analyzing historic and social spaces where everything including the intention and strategies of an producer who produces a novel, and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the novel is positioned. It is to review diverse points and contexts where Korean modern historical novels are placed while repositioning discussions over historical novels, which have been concentrated on a specific period, in the context of the literary context.

The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were a product of the intention of pursuing the unification of n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homogeneous nation by recovering national memories after calling national heroes of the past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hat is, the most ideal type of discourse

that the authors of those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introduced in structuralizing their political orientation and view of world was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Likewise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were thoroughly the product of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yet their literary form is inheriting that of Jeon-typed (biographic) literature or novels of military story. Such a descriptive method of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is repeated also in old-styled-novels(the type of DDack-JI) in the 1910s and the 1920s. However, it is hard to assert that the formal similarity is a sure proof of the continuance of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and old-style-novels.

Both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of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and old- styled-novels of the period were all superficially the literary form borrowing history, yet, the way of approach should be totally different. In other words,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were written to express the national spirit by borrowing history at the time of the crisis of the extinction of a 'nation' in common, whereas old-style-novels of the same period utilized the form of the previous period and history as a medium of approaching the public more easily with commercial intention.

Finally, the increase of such an interest in history and the expansion of reader groups, old novels with historic materials created a foundation that modern historical novels could be prosperous. At the time when old-style-novels declined, 'the history of Choseon historical novel' began to be established. Then, the organizational historical novel restoration movement started to be developed and historical novel were substantially produced and distributed. From the early 1910s to the mid 1920s, the role of old novels with old-style-novels that functioned as a significant medium of the historic consumption by the public seemed to be transferred to Ya-Dam.

---

## Key Words

historical novel, historic and biographic novels, Old-style-novels(the type of DDACK-JI),  
historic discourse, genre, medium, publishing, reader, popular literature, YA-DAM

\* 위 논문은 2006년 4월 7일 투고되어,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K C I